

게임사 1분기 실적 부진... 신작으로 반등 노린다

넷마블 영업익 339억... 54% 감소
넥슨·엔씨소프트 등도 실적 떨어져
'BTS월드' '마기아' '리니지2M' 등
2분기 대규모 신작공세로 악재 극복

게임업계가 올 1·4분기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캐시 카우'가 될 신작이 부재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장기적으로는 최대수출시장인 중국이 막혀있고, 국제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화 코드 등재도 게임업계의 악재로 꼽힌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날 넷마블은 올 1·4분기 매출 4776억원, 영업이익 339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9%, 54.3% 줄어든 수치다.

권영식 넷마블 대표는 "지난 1분기는 신작 부재 영향으로 실적이 부진했다"며 "2분기에는 지난 9월 출시한 '킹 오브 파이터 올스타'를 비롯해 'BTS월드', '일곱 개의 대죄' 등 다양한 장르의 기대신작이 국내는 물론 북미, 일본 등

〈넷마블 2019년 1분기 실적〉

| | 2018년 실적 | | | | | 2019년 실적 | | YoY | QoQ |
|--------|----------|-------|-------|-------|--------|----------|-------|--------|--------|
| | | 1Q | 2Q | 3Q | 4Q | | 1Q | | |
| 매출 | 20,213 | 5,074 | 5,008 | 5,260 | 47,871 | 4,776 | 4,776 | -5.9% | -2.0% |
| 해외매출 % | 14,117 | 3,433 | 3,533 | 3,824 | 3,327 | 2,879 | 2,879 | | |
| | 70% | 68% | 71% | 73% | 68% | 60% | 60% | | |
| 영업이익 | 2,417 | 742 | 622 | 673 | 380 | 339 | 339 | -54.3% | -10.8% |
| 당기순이익 | 2,149 | 789 | 663 | 551 | 146 | 423 | 423 | -46.4% | 189.7% |

빅마켓 출시를 앞두고 있어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빅3' 게임사 중 넥슨과 엔씨소프트 또한 각각 영업이익이 5367억원, 795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4%, 61% 줄어 들었다.

게임 대형 3사를 제외한 상장 게임사들의 실적도 부진하다. 펠어비스(-55%), 웹젠(-62%), 컴투스(-24%) 등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떨어졌다. 게임빌, 위메이드, 조이맥스는 적자를 유지하거나 전환됐다. 엔씨소프트, 펠어비스 등은 올해 신작 출시가 없었다.

실제 엔씨소프트의 실적 부진은 신작 부재 속 '리니지' 리마스터 버전으로

넘어가기 전 일시적 업데이트 중단으로 인한 매출감소로 판단된다. 다만, '리니지M' 업데이트 효과가 4월부터 반영되고, 리니지1 리마스터 버전 업데이트 후 호조를 보이고 있어 2·4분기 실적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넥슨은 올 1·4분기 전체 매출 비중의 76%를 차지하는 7216억원(707억엔)의 해외 매출을 기록했지만, 대표 스테디셀러 '던전앤파이터'의 견인 덕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스피릿위서' 등 신작은 아직까지 눈에 띄는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게임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장기적인 이슈도 있다. 이달 열리는

세계보건총회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중독을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국제질병분류(ICD) 개정안을 추진한다. 여기에서 게임 과몰입이 정신질환으로 분류되면 셋다운제, PC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등 각종 규제 압박을 받은 국내 게임 업계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이덕주 교수 연구팀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한 '게임 과몰입 정책변화에 따른 게임산업의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질병코드화가 시행될 경우 향후 3년 간 3조8214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매

출의 경제적 위축효과는 같은 기간 6조 345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사들은 신작을 통해 게임업계 악재를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넷마블은 우선 글로벌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게임에서 만날 수 있는 스토리텔링형 육성 모바일 게임 'BTS월드(BTS WORLD)'를 지난 10일 글로벌 사전등록을 시작해 내달 출시할 예정이다. 또 한국과 일본에서 사전등록 500만 명을 넘어선 '일곱 개의 대죄: GRAN D CROSS'도 내달 출시 예정이다.

매각 논란 속에 있는 넥슨은 흔들리지 않고 준비한 신작들을 내보내겠다는 계획이다. 넥슨은 지난달 출시한 모바일다중접속속역할수행게임(MMORPG) '트라하'를 시작으로 '고질라 디펜스 포스', '마기아', '바람의 나라: 연'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을 출시해 2·4분기 이후에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엔씨소프트도 연내 '리니지2M', '블레이드&소울S' 등을 출시하며 최대 매출을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협력사 상생 '공정거래협약' 체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0일 경남 거제 지역의 벌바 디어리조트에서 2019년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하도급법 준수와 공정거래 이행을 위한 '공정거래협약식'을 비롯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협력사 협의인 상생회의 '제9회 정기총회'를 개최해 협력사들의 올해 주요 경영 이슈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사들의 어려움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기운데)와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SK텔레콤, 5G 활용 '골프 생중계' 첫 선

JTBC와 협업 통해 서비스 추진
옥수수서 '5GX전용홀' 중계도

SK텔레콤은 오는 16일부터 나흘간 인천 중구 SKY 72 골프앤리조트 하늘 코스에서 열리는 'SK텔레콤 오픈 2019'에서 5G 무선 네트워크를 활용한 골프 생중계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14일 밝혔다.

SK텔레콤은 JTBC와의 협업을 통해 5G 상용망을 활용한 TV 스포츠 생중계를 추진한다. 또 '옥수수'를 통해 별도 자막과 해설이 제공되는 '5GX 전용홀 중계'도 선보인다.

SK텔레콤은 SKY 72 골프장의 3번, 4번, 9번 홀을 '5GX 전용 홀'로 지정하고, 5G 무선 중계 설비를 구축했다. 소형 5G 모델과 연결된 ENG 카메라로 선수들의 경기 장면을 촬영, 5G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JTBC골프 채널로 송출한다.

일반적으로 골프 중계는 촬영 영상은

각 홀에 구축된 유선 케이블을 통해 현장에 있는 중계차로 보내고, 이를 다시 중계차에서 방송국 주·부조정실로 송출하는 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5G 골프 생중계는 무선 모델과 연결된 카메라에서 임시 조정실로 영상을 직접 송출해 옥수수로 방송하는 것으로, 중계 현장에 카메라를 위한 복잡한 선과 중계차 설비가 필요 없게 된다.

5G 상용망이 스포츠 중계에 활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용량·초고속·초저지연 특성의 5G를 생중계에 활용하면 각종 물리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넓은 공간에서 진행되는 마라톤, 골프 등 중계에 변화가 가능하다고 SK텔레콤 측은 밝혔다. 특히 중계차나 케이블 설치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5G 무선 네트워크 중계 가스포즈에 이어 뉴스에도 확대되도록 방송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업 관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기아차, 하이클래스 소형SUV 렌더링 공개

하반기 글로벌 공략할 야심작
대범하고 섬세한 이중적 매력

기아자동차가 글로벌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시장 공략을 위해 새로운 야심작의 모습을 공개했다.

기아차는 올해 하반기 국내를 시작으로 인도, 유럽, 중국 등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 선보일 예정인 '하이클래스 소형 SUV'의 첫 번째 외장 렌더링 이미지를 14일 최초로 공개했다.

기아차의 새로운 글로벌 소형 SUV는 혁신적이고 대범한 스타일과 차별화된 감성적 가치가 응축된 '컴팩트 시그니처'를 핵심 키워드로 개발됐다. 정통 SUV 스타일을 모던한 젊은 감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은 물론 기존 소형 SUV에서는 느끼기 힘들었던 즐겁고 편안한 주행 성능 및 탁월한 공간감을 갖췄다.

또 탑승자의 감성적 만족감까지 고려한 첨단 신기술의 조화에 집중함으로써 기존 소형 SUV와는 차원이 다른 하이클래스 SUV만의 차별화된 상품성을 제공한다.



기아차 하이클래스 소형SUV 렌더링 이미지.

기아차는 지난 3월 서울모터쇼에서 신규 글로벌 소형 SUV의 이상적인 이미지를 제시한 콘셉트카 'SP 시그니처'를 공개해 본격적인 신차 출시 전부터 고객들의 큰 관심과 기대를 이끌어 낸 바 있다.

기아차 '하이클래스 소형SUV'의 외관 디자인은 ▲대담한 룩후드 스타일과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범퍼 캐릭터라인이 강조된 전면부 ▲볼륨감 있는 펜더를 기반으로 정교한 리어컴비네이션 램프, 이와 연결되는 테일게이트 가니시를 적용한 후면부로 강인하면서도 섬세한 이중적인 매력을 선보인다.

특히 전면과 후면을 아우르는 대범하면서도 섬세한 '시그니처 라이팅'을 강조했다. ▲헤드램프와 연결되는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 상단의 LED 라이팅 ▲헤드램프와 유사한 그래픽의 LED리어 램프를 적용해 하이클래스 SUV의 디자인 완성도를 높였다.

또 강인하면서도 섬세한 디자인이 돋보이도록 ▲라디에이터 그릴의 테두리 다이아몬드 패턴 ▲머플러 형상의 리어 가니시를 통해 기존 소형 SUV에서 찾아볼 수 없는 차별화된 고급스러움을 담고 있다.

기아차는 신규 하이클래스 소형 SUV 출시를 통해 스토닉·쏘울·니로·스포티지·쏘렌토·모하비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고객의 다양한 취향에 부합하는 SUV 라인업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신규 하이클래스 소형 SUV는 기아차 SUV 라인업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시그니처 모델로 자리매김해 글로벌 SUV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

두산 '물류 자동화 솔루션' 사업 진출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설립
중대형 물류 창고 운영사 타깃

두산이 물류 센터내 제품 입고부터 이동, 저장, 반출까지 전 과정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물류 자동화 솔루션' 사업에 진출한다.

두산은 최근 통합 물류 자동화 기술을 확보하고, 이 사업을 운영할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을 설립했다고 14일 밝혔다.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은 물류 전 과정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하드웨어 기술과 이를 뒷받침할 소프트웨어 기술을 통합해 탄력적으로 물류를 제공한다. 이커머스 및 중대형 물류 창고 운영업체가 주요 고객이다.

물류 자동화 시장은 최근 이커머스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주된 채널 및 처리 물품이 다양해지고 소비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주목 받고 있다.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은 물류 자동



화 솔루션을 두산의 기존 사업인 산업차량(지게차), 협동로봇, 드론용 연료전지 등 핵심역량과 접목해 자율주행 지게차, 물류용 협동로봇 및 드론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등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성격이 다른 물류 시스템 간 통합으로까지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연우기자 ywj964@